



국무조정실
국무총리비서실

보도자료

(배포) 2018. 12. 16(일)
09:00

12월 16일(일) 10:00 이후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

심의관 정홍근
(044-200-2132)

이낙연 국무총리, 마그레브 3개국 공식방문 위해 12월 16일 출국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그레브 3개국(알제리, 튀니지 및 모로코) 공식방문을 위해 12월 16일(일) 오전 공군 1호기로 서울공항에서 출국합니다.
- 이번 순방에서 국무총리를 수행하는 공식 수행원은 총 19명입니다.
 - * 공식 수행원인 주 알제리 대사, 주 튀니지 대사 및 주 모로코 대사는 현지 합류
 -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정운현 비서실장, 추종연 외교보좌관, 지용호 정무실장, 김성재 공보실장, 정영주 의전비서관, 김준구 외교안보정책관 등 6명이 수행합니다.
 - 외교부에서 조현 제1차관, 구홍석 의전기획관 및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, 환경부 박천규 차관(알제리 일정만 수행), 관세청 김영문 관세청장(알제리 일정만 수행),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, 농촌진흥청 이규성 차장(튀니지 및 모로코 일정만 수행)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(알제리 일정만 수행), 국토교통부 정경훈 건설정책국장, 그리고 이미경 KOICA 이사장(튀니지, 모로코 일정만 수행)이 공식 수행원단에 참여합니다.
- 이번 마그레브 3개국 공식방문에는 한-모로코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박완주 의원(더불어민주당), 한-알제리 의원친선협회 소속 정인화 의원(민주평화당), 한-튀니지 의원친선협회 소속 이태규 의원(바른미래당)이 동행합니다.

□ 이번 순방에는 마그레브 3개국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54개 민간기업, 공기업 및 경제단체 대표들도 동행합니다.

* 알제리 32개사, 튀니지 24개사, 모로코 37개사 (중복 포함)

○ 대우건설, 롯데제과, SK이노베이션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, 정보기술(IT)·보건·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도 다수 참가하며, 3개국에서 모두 비즈니스 포럼과 1:1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

○ 경제단체 및 공기업으로는 코트라, 무역협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해외건설협회, 전국은행연합회, 플랜트산업협회,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,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참가합니다.

□ 이 총리는 마그레브 3개국 순방을 마치고 한국시간으로 12월 23일 (일) 오전에 귀국할 예정입니다.